

온라인 소식지

# 경기옛길

2026  
봄



강화길 제2길 김포성당



## contents

### 04 소식

탐방로 변경 소식  
아이와 함께 배우는 길, 「경기옛길 사용설명서」  
업그레이드 되어 돌아온 「경기옛길 더하기 환경, 투개더」

### 09 코스소개

길따라 맛따라 - 봄 미나리편

### 09 인터뷰

명예완주자 박상욱 탐방객님

### 11 문화유산

천림산 봉수대, 옛길 위에 남은 불빛의 기억

### 12 이야기

서낭고개 - 여우와의 애절한 사랑

### 15 독자 기고

시원한 강바람이 봄을 재촉하는 듯... 경기옛길 평해길 제3길 정약용길(마재옛길)

### 18 전문가 기고

기록따라 걷는 영남길 이야기

# 산을 **타러** 가십니까?



# 산을 **태우러** 가십니까?

불법 흡연과 취사, 산림을 없애는 무기입니다.

산을 타러 가셨다면, 산은 태우지 마세요

참여자모집

# 경기옛길 사용설명서

모집기간 | 2026. 4. 20.(월) ~ 마감 시



옛길역사를 배우고

자연을 관찰하고

내 손으로 기록하고

## 교육일정

1회차 5. 23.(토) 10:00~12:00

2회차 5. 30.(토) 10:00~12:00

※ 회차별 교육 내용 동일

3회차 6. 6.(토) 10:00~12:00

## 교육장소

분당중앙공원 수내동가옥 일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50)

## 교육대상

초등 저학년 어린이 및 보호자 / 회차 당 20팀 모집

※ 어린이 1명 당 보호자 1명 필수 참여(형제·자매 동반 가능)

## 신청방법

네이버폼 선착순 접수

✓ 참가비 무료

신청서  
바로가기





## 탐방로 변경 소식



### 스도라보드 위치

구간	표지석 위치	구간	표지석 위치
1	공인사택 빌라아파트	20	경수문화마을
2	공인사택 빌라아파트	21	경수문화마을
3	공인사택 빌라아파트	22	경수문화마을
4	공인사택 빌라아파트	23	경수문화마을
5	공인사택 빌라아파트	24	경수문화마을
6	공인사택 빌라아파트	25	경수문화마을
7	공인사택 빌라아파트	26	경수문화마을
8	공인사택 빌라아파트	27	경수문화마을
9	공인사택 빌라아파트	28	경수문화마을
10	공인사택 빌라아파트	29	경수문화마을
11	공인사택 빌라아파트	30	경수문화마을
12	공인사택 빌라아파트	31	경수문화마을
13	공인사택 빌라아파트	32	경수문화마을
14	공인사택 빌라아파트	33	경수문화마을
15	공인사택 빌라아파트	34	경수문화마을
16	공인사택 빌라아파트	35	경수문화마을
17	공인사택 빌라아파트	36	경수문화마을
18	공인사택 빌라아파트	37	경수문화마을
19	공인사택 빌라아파트	38	경수문화마을
20	공인사택 빌라아파트	39	경수문화마을
21	공인사택 빌라아파트	40	경수문화마을
22	공인사택 빌라아파트	41	경수문화마을
23	공인사택 빌라아파트	42	경수문화마을
24	공인사택 빌라아파트	43	경수문화마을
25	공인사택 빌라아파트	44	경수문화마을
26	공인사택 빌라아파트	45	경수문화마을
27	공인사택 빌라아파트	46	경수문화마을
28	공인사택 빌라아파트	47	경수문화마을
29	공인사택 빌라아파트	48	경수문화마을
30	공인사택 빌라아파트	49	경수문화마을
31	공인사택 빌라아파트	50	경수문화마을
32	공인사택 빌라아파트	51	경수문화마을
33	공인사택 빌라아파트	52	경수문화마을
34	공인사택 빌라아파트	53	경수문화마을
35	공인사택 빌라아파트	54	경수문화마을
36	공인사택 빌라아파트	55	경수문화마을
37	공인사택 빌라아파트	56	경수문화마을
38	공인사택 빌라아파트	57	경수문화마을
39	공인사택 빌라아파트	58	경수문화마을
40	공인사택 빌라아파트	59	경수문화마을
41	공인사택 빌라아파트	60	경수문화마을
42	공인사택 빌라아파트	61	경수문화마을
43	공인사택 빌라아파트	62	경수문화마을
44	공인사택 빌라아파트	63	경수문화마을
45	공인사택 빌라아파트	64	경수문화마을
46	공인사택 빌라아파트	65	경수문화마을
47	공인사택 빌라아파트	66	경수문화마을
48	공인사택 빌라아파트	67	경수문화마을
49	공인사택 빌라아파트	68	경수문화마을
50	공인사택 빌라아파트	69	경수문화마을
51	공인사택 빌라아파트	70	경수문화마을
52	공인사택 빌라아파트	71	경수문화마을
53	공인사택 빌라아파트	72	경수문화마을
54	공인사택 빌라아파트	73	경수문화마을
55	공인사택 빌라아파트	74	경수문화마을
56	공인사택 빌라아파트	75	경수문화마을
57	공인사택 빌라아파트	76	경수문화마을
58	공인사택 빌라아파트	77	경수문화마을
59	공인사택 빌라아파트	78	경수문화마을
60	공인사택 빌라아파트	79	경수문화마을
61	공인사택 빌라아파트	80	경수문화마을
62	공인사택 빌라아파트	81	경수문화마을
63	공인사택 빌라아파트	82	경수문화마을
64	공인사택 빌라아파트	83	경수문화마을
65	공인사택 빌라아파트	84	경수문화마을
66	공인사택 빌라아파트	85	경수문화마을
67	공인사택 빌라아파트	86	경수문화마을
68	공인사택 빌라아파트	87	경수문화마을
69	공인사택 빌라아파트	88	경수문화마을
70	공인사택 빌라아파트	89	경수문화마을
71	공인사택 빌라아파트	90	경수문화마을
72	공인사택 빌라아파트	91	경수문화마을
73	공인사택 빌라아파트	92	경수문화마을
74	공인사택 빌라아파트	93	경수문화마을
75	공인사택 빌라아파트	94	경수문화마을
76	공인사택 빌라아파트	95	경수문화마을
77	공인사택 빌라아파트	96	경수문화마을
78	공인사택 빌라아파트	97	경수문화마을
79	공인사택 빌라아파트	98	경수문화마을
80	공인사택 빌라아파트	99	경수문화마을
81	공인사택 빌라아파트	100	경수문화마을

### 탐방길

이름, Name: 인덕리, Inbudeok-ri  
시작일, Start Date: 완료됨, Complete Date

08 | 탐방길 소개

### 시설물 정비·보수 안내

#### 강화길 스탬프함 교체 소식

강화길 전 구간의 스탬프함이 새롭게 교체되었습니다. 경기옛길은 2025년 삼남길·의주길·영남길 스탬프함을 전면 교체한 데 이어, 금년 1분기에는 강화길 스탬프함까지 교체를 완료하였습니다. 기존 스탬프함은 지속적인 부분 보수를 통해 유지해 왔으나, 훼손이 누적되고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불가피하게 교체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설치된 스탬프함은 전체 노선 간 통일성을 고려하여 삼남길·의주길·영남길과 동일한 디자인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아울러, 강화길 2길 김포아트빌리지 스탬프함은 기존 공원 내 쉼터에서 중앙 정자 앞으로 위치를 이동하여 재설치하였으니 이용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탐방 노선 정비 안내

#### 2026년 경기옛길 탐방로 일부 구간 변경 예정

경기옛길 일부 구간이 2026년을 맞아 순차적으로 정비될 예정입니다. 현재 경기옛길 7개 노선에서는 △공사, △단지 개발, △사유지 편입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일부 구간이 한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폐쇄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탐방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2026년 에도 탐방로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변경되는 탐방로 정보는 경기옛길 누리집과 SNS를 통해 신속하게 안내해 드릴 예정이니, 탐방 전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탐방객 여러분의 의견도 소중히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용 중 불편 사항이나 개선 의견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경기옛길센터로 제안해 주시면, 향후 정비 과정에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 >> 스탬프북 신규 제작·배포 안내

### ☑ 2026년판 경기옛길 스탬프북 제작 및 배포

2026년판 경기옛길 스탬프북이 새롭게 제작되어 각 스탬프함에 배포되었습니다.

이번 스탬프북은 2025년 동안 진행된 스탬프함 위치 이동, 탐방로 노선 변경, 일부 내용 오류 등을 반영하여 전면 수정·보완되었습니다. 특히 스탬프함 위치와 노선 거리 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정비하여 탐방 편의를 높였습니다.

또한 경기옛길이 단순한 도보 탐방로를 넘어 역사문화탐방로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약 210여 곳의 역사·문화 콘텐츠 스토리보드 위치를 새롭게 수록하였으며, 각 길별 개략 노선 지도도 추가하였습니다.

현재 스탬프북은 각 구간 스탬프함에 비치되어 있으니 탐방 시 자유롭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탐방 인증 방식은 기존과 동일하므로, 이미 사용 중인 기존 스탬프북으로도 계속해서 인증이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정용균 연구원>



## '경기옛길 더하기, 환경 투개더'가 더 풍성해져 돌아왔습니다

지난해 큰 호응을 얻었던 '경기옛길 더하기, 환경 투개더' 프로그램이 한층 업그레이드되어 돌아왔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반려견과 함께 경기옛길을 탐방하며 플로깅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걷는 즐거움과 환경 보호의 가치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탐방로 곳곳에는 퀴즈가 마련되어 있어, 경기옛길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동시에 참여의 재미를 더했습니다. 또한 퀴즈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소소한 경품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오프닝 시간에는 반려견 행동 전문가와 함께하는 미니 Q&A 세션도 준비되어 있어 반려인들에게 유익한 정보와 소통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프로그램은 상반기 6월 20일 1회차를 시작으로 하반기에는 총 3회에 걸쳐 경기옛길 곳곳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반려견과 경기옛길을 걸으며 의미있는 시간을 경험해보세요.

<이소정 연구원>





## 아이와 함께 배우는 길, 「경기옛길 사용설명서」



경기옛길을 단순히 걷는 길이 아닌, 아이와 함께 배우고 이해하는 교육의 공간으로 경험해보고자 「경기옛길 사용설명서」 프로그램을 기획하였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옛길의 역사와 자연을 배우고, 직접 걸으며 관찰한 내용을 바탕으로 아이만의 ‘옛길 사용설명서’를 완성해보는 교육형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단순한 체험을 넘어, 아이들이 스스로 보고, 생각하고, 표현하는 과정을 통해 경기옛길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영남길 제2길 낙생역길은 풍수지리가 좋아 ‘영락장생지’라 불렀던 조선시대 낙생역이 있던 길로, 오랜 시간 사람과 소식이 오가던 역사적 공간입니다. 특히 분당중앙공원에서는 잘 보존된 한산 이씨의 수내동가옥을 만날 수 있어, 현대 도심 속에서도 과거의 생활 모습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잘 가꾸어진 1기 신도시의 녹지와 전통 가옥이 어우러진 이 길은,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특별한 매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수내동가옥에서 옛 생활을 배우고, 낙생역길을 직접 걸으며 주변의 자연과 길의 흔적을 관찰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아이들은 현재의 풍경 속에서 옛 모습을 상상하고, 이를 콜라주 활동으로 표현하며 나만의 옛길 지도를 완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완성된 ‘옛길 사용설명서’는 아이의 시선으로 재해석된 경기옛길의 기록이자, 가족과 함께한 소중한 경험으로 남게 됩니다.

「경기옛길 사용설명서」는 2026년 5월 23일부터 6월 6일까지 매주 토요일에 운영되며, 초등 저학년 어린이와 보호자가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가자 모집은 4월 20일부터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회차당 20팀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 걷고, 배우고, 기록하는 특별한 시간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옛길센터 누리집(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예영 연구원>

# 길따라 맛따라 **봄 미나리편**



길을 따라 걷다 보면 어느 순간 계절의 향기가 느껴집니다.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오는 이맘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식재료는 단연 향긋한 미나리입니다. 이번 '길따라 맛따라'에서는 탐방로 인근에서 만날 수 있는 봄철 별미, 미나리를 활용한 맛집들을 소개합니다. 걷는 즐거움에 더해지는 싱그러운 한 끼로, 봄날의 여운을 더욱 깊게 느껴보세요.



## 평해길 제2길 미음나룻길 미나리전

**팔당 자연애**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팔당로 139번길 22

식당 '팔당 자연애'는 깨끗한 밭미나리를 사용해 만든 미나리전이 특히 인상적인 곳입니다. 바삭하게 부쳐낸 미나리전은 향긋한 풍미가 살아 있어 걷는 길 위에서의 허기를 기분 좋게 채워줍니다. 정갈하게 차려지는 밑반찬과 좋은 재료를 듬뿍 넣어 끓인 만수무강차 또한 이곳의 매력입니다. 여기에 새콤달콤한 양념과 쫄깃한 면 식감이 어우러진 비빔국수를 곁들이면 미나리전의 담백한 풍비와 어우러져 더욱 만족스러운 한 끼를 완성합니다. 평일 낮에도 웨이팅이 있을 만큼 인기 있는 맛집으로, 평해길을 걷다 잠시 들러 이 맛있는 조합을 한 번 경험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 영남길 제5길 수어선옛길 미나리 샐러드

**밀밭샐러드** 경기 용인시 처인구 금학로 265번길 2

영남길 인근의 밀밭샐러드는 1인분 1만 1천원의 합리적인 가격으로 든든한 식사를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산더미처럼 푸짐하게 제공되는 미나리와 각종 채소를 얼큰하거나 맑은 국물에 취향껏 데쳐 먹다 보면, 길 위에서 쌓인 피로도 어느새 부드럽게 풀립니다. 여기에 식당에서 직접 만든 쫄깃한 손칼국수와 고소한 마무리 죽까지 더해지면 넉넉하고 만족스러운 한 끼가 완성됩니다. 동네 주민들도 꾸준히 찾는 숨은 맛집으로 영남길 탐방 중 부담 없이 들리기 좋은 푸근한 식당입니다.





**삼남길 제3길 모락산길 미나리 삼겹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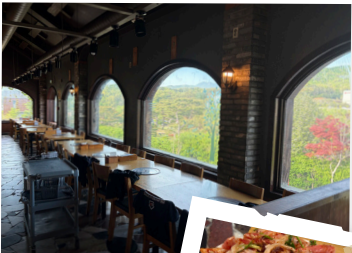
**오전상회** 경기 의왕시 오매기중간길 3

오전상회는 독특한 야장 분위기가 돋보이는 공간으로, 아담한 규모 덕분에 방문 전 예약이 필요한 곳입니다. 시골에서 고기를 구워 먹는 듯한 정취와 레트로 감성이 어우러져 색다른 경험을 선사하며, 미나리를 곁들여 구워 먹는 삼겹살은 향긋한 풍미로 특히 인상적입니다. 여기에 일일이 세기 어려울 만큼 다양한 메뉴까지 더해져 선택의 재미를 높여줍니다. 특별한 분위기 속에서 추억을 쌓고 싶은 날, 둘러보시면 어떨까요?



**삼남길 제3길 모락산길 미나리오리차돌**

**와우리장작구이 백운호수점** 경기 의왕시 백운로 394



와우리장작구이는 ‘미나리오리차돌’이라는 이색적인 메뉴로 눈길을 끄는 곳입니다. 넓고 쾌적한 공간에서 여유롭게 식사를 즐길 수 있으며, 얇게 썬 오리를 차돌처럼 구워 미나리를 듬뿍 곁들이면 향긋함과 고소함이 어우러진 특별한 맛을 경험하게 됩니다. 식사 후에는 잔치국수가 무료로 제공되고, 넉넉한 양 덕분에 아주 든든히 식사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배불러도 마무리 볶음밥은 선택이 아닌 필수예요. 봄의 기운을 한껏 담고 싶다면 미나리를 추가해 더욱 풍성하게 즐겨보시길 권합니다. 흔치 않은 메뉴와 확실한 맛으로, 다시 찾고 싶어지는 매력적인 식당입니다.

<이소정 연구원>





아내가 찍어준 사진!

**병에완주자**  
**박상욱** 탐방객님



따님이 직접 제작해 주신 캐릭터!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경기옛길을 걷게 된 계기를 들려주세요.



코레일에서 수도권 전동차를 운전하던 기관사로 근무하다 정년퇴직했습니다. 퇴직을 하고나니까 시간이 생겼는데 이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고 싶어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인천대공원이나 소래산 같은 데를 다니다 인천둘레길을 알게 되어 완주를 했어요. 이렇게 길을 다니다보니 강화길을 만나게 됐고 자연스럽게 경기옛길을 걷게 됐습니다.

이번 봄호에서는 가족과 함께 걸은 경기옛길의 경험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탐방객님께서 아내와 경기옛길 몇가지 코스를 함께 걸으셨다고 들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을 나눠주세요.



평소에는 혼자 많이 걸었는데 여행을 좋아하지 않던 아내가 함께 걷고 싶다고 해서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속도는 느려지지만 이야기를 나누며 걷는 게 좋았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같이 걸으면서 사진을 남기게 된 거예요. 원래는 풍경이나 문화유산만 찍었는데, 뒤에서 제 모습을 찍어주니까 좀 신기하기도 하고 색다른 느낌이었습니니다. 그리고 길을 걷다 보니까 예상하지 못했던 장소들도 만나게 되더라고요. 언더우드 선교사 기념비를 함께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순간도 기억에 남고, (의주길을 걷다) 우연히 아내 조상의 묘소를 찾아가게 된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경기옛길만의 특별한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과 함께 걸으며 새롭게 느낀 점이 있으셨나요?



예전에는 정말 앞만 보고 살았던 것 같아요. 일하고, 아이들 키우고 그러다 보니깐요. 그런데 이제는 같이 걸으며 옆도 보고 뒤도 돌아보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또 함께 걷는 과정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힘든 순간에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좋았습니다. 아내와 저는 모두 농부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그렇기에 흙길을 밟으며 걷는 경험, 햇볕이 주는 건강함 등 자연 속에서 얻는 소중한 가치들을 새롭게 느낀 점도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 함께 걷는 여정과 혼자 완주하는 여정은 서로 다른 경험이었을 것 같습니다. 두 경험의 매력을 설명해주신다면요?



혼자 걷는 건 정말 제 시간입니다.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좋은 풍경 나오면 멈춰서 한참 보고... 그런 자유가 있어요. 반면 함께 걷는 길은 대화와 교감의 즐거움이 있지만, 속도나 일정이 개인의 것이 아닌 ‘함께의 시간’이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각각의 매력이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 세 번이나 경기옛길을 완주한 명예완주자이십니다. 매년 길을 나서게 되는 경기옛길의 매력은 무엇인가요?



경기옛길은 단순한 도보길이 아니라, 조선시대와 우리 선조들의 이야기가 살아 있는 길입니다. 저는 단순히 걷는 것보다, 그 길에 있는 이야기를 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통은 길 가는 게 목적이거나 스탬프 찍는 게 목표가 되는데, 사실은 그 주변에 있는 문화유산이나 전설, 지역 이야기들이 훨씬 재미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길을 걸을 때 주변 100m, 많게는 300~500m까지라도 꼭 둘러서 보고 옵니다. 그렇게 걷다 보니까 길이 훨씬 풍부해지더라고요. 또 같은 길이라도 계절에 따라 전혀 다른 풍경을 보여주기 때문에, 매년 다시 걷고 싶어지는 매력이 있습니다.

### 경기옛길은 677km의 긴 여정입니다. 긴 여정을 완주하는 과정에서 힘들었던 순간과 극복 방법이 있으신가요?



처음부터 677km라는 전체 거리를 생각하면 부담이 큼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구간별로 나눠서 계획을 세웁니다. 내가 하루에 몇 km 정도 걸을 수 있는지 기준을 잡고, 출발 시간도 정해놓고요. 보통 아침 일찍 출발하면 오후에는 마무리할 수 있어서 그 리듬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길을 걸을 때는 ‘신발 끝만 보라’는 생각으로 걷습니다. 멀리 목적지를 보려고 하면 더 힘들어지거든요. 한 걸음, 한 걸음 눈앞의 걸음에 집중하다 보면 어느새 도착하게 됩니다.

### 경기옛길을 걸으며 얻은 개인적인 변화가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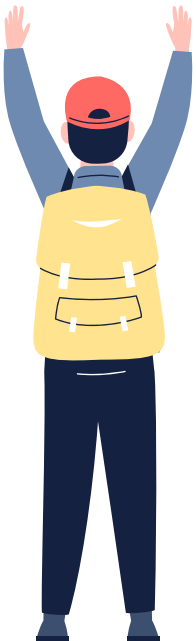


가장 큰 변화는 역시 건강입니다. 땀을 많이 흘리고 물을 많이 마시니까 확실히 몸의 변화가 느껴집니다. 꾸준히 걷다 보니 20년 전 입던 옷이 다시 맞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많이 알게 됐다는 점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처럼 책으로 배우는 것과 직접 보고 느끼는 건 정말 다르더라고요.

### 가족과 함께 혹은 언제라도 경기옛길을 걷고자 하는 분들께 완주선배로서 조언이나 추천의 말을 남겨주세요.



처음에는 난이도가 낮은 구간부터 시작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족과 함께라면 평지 위주의 코스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조금 알고 가면 훨씬 재미있습니다. 그 길에 뭐가 있는지,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미리 찾아보고 가시면 훨씬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팁 하나 드리자면, 신발이 정말 중요합니다. 좋은 신발보다 ‘내 발에 맞는 신발’이 더 중요합니다. 잘못 신으면 물집 생기고 걷기가 힘들어지니까요.



## 천림산 봉수대

옛길 위에 남은 불빛의 기억 ☆

경기옛길 영남길 1길 '달래내고개길'의 시작점에 서면, 단정하게 복원된 천림산 봉수대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이곳은 조선시대 전국 다섯 개 봉수 노선 가운데 두 번째에 해당

하는 핵심 거점으로, 남쪽에서 올라온 신호를 받아 한양으로 전달하던 중요한 통신 시설이었습니다.

천림산 봉수대가 자리한 곳은 단순한 산길이 아니라, 옛날 사람들이 한양으로 오가던 중요한 길목이었습니다. '달이내고개', 지금의 달래내고개로 불리던 이 길은 삼남 지방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이 반드시 지나야 했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봉수대를 세우면 넓은 지역을 한눈에 볼 수 있고, 신호를 이어 보내기에도 매우 유리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걷는 경기옛길 위에, 옛날 국가 통신망의 중심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점이 더욱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천림산 봉수대는 구조에서도 그 중요성이 잘 드러납니다. 동서로 길게 뻗은 타원형 형태로, 둘레가 약 80m에 이르는 비교적 큰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부에는 불을 피우던 연조(굴뚝) 다섯 개와 방호벽, 담장, 출입구, 그리고 봉수군이 머물던 건물터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특히 일부 연조는 지금도 형태가 잘 남아 있어 당시 봉수 운영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이처럼 중요한 봉수대였지만, 오랜 시간 정확한 위치가 알려지지 않아 잊혀져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96년, 지역 주민 윤호상씨의 제보를 통해 그 위치가 다시 확인되었고 이후 발굴 조사와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2002년 경기도기념물로 지정되었으며, 2019년에는 역사적 기록을 바탕으로 복원되어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현재 천림산 봉수대는 단순히 옛 유적을 넘어, 역사 교육과 체험의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영남길을 걷다가 천림산 봉수대에 도착하시면, 잠시 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눈에 보이는 조용한 봉수대는 더 이상 연기와 불을 올리지는 않지만, 그 자리에는 여전히 옛날 사람들의 지혜와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길 위에서 과거와 현재가 이어지는 특별한 순간을 만나보세요.

**참고자료:** 경기신문 <추석 연휴 가볼만한 '천림산 봉수(天臨山 烽燧)'... "코로나 종식 '평안화(平安火)'를 고대하며"> 김대성 기자 지역N문화포털 <통일기원 봉화제로 인해 세상에 알려진 경기 성남의 천림산 봉수대>

<이소정 연구원>

# 서낭고개

## 여우와의 애절한 사랑

길에는 늘 사람이 남긴 이야기가 깃들여 있습니다.

경기옛길 곳곳에도 세월을 따라 전해 내려오는 전설과 삶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데요.

이번에는 강화길 (봉성2리 서낭당고개)에 얽힌, 효성과 사랑이 교차하는 애절한 이야기를 따라가 봅니다.

봉성2리 산중턱 서낭(성황당) 고개에는 옛날부터 효자에 대한 애절한 전설이 전해온다.

옛날에 바보지만 효성이 지극한 덕칠이와 노모가 동네에서 조금 떨어진 외딴 집에서 살았다. 덕칠이는 매일 땀나 무를 열심히 해서 장에 내다 팔아 늙은 홀어머니를 극진히 봉양했다. 그러나 이렇게 착하기만 한 덕칠이를 동네 사람들은 골려주기를 좋아했다.

어느 추운 겨울날, 동네 청년들은 덕칠에게 길장가를 보내주겠다고 했다. “이봐 덕칠이, 우리가 자네 장가 보내줄까?” “헤헤, 좋아요.” 이렇게 해서 덕칠은 마을 청년들을 따라 동구 밖 서낭당고개에 이르렀다. 청년들은 서낭당고개를 지나가는 여자에게 장가가는 것이라고 하며 제각기 “나는 첫 번째 지나가는 여인”, “나는 두 번째”, “나는 몇 번째”해서 덕칠은 마지막 여자에게 길장가를 가기로 정하고 고개 근처에 숨어서 여자들이 오기를 기다렸다. 첫 번째 여자는 노파였고, 다음은 어린아이, 다음은 중년부인 등등, 모두가 우스운 상대였으나 마지막에는 젊고 아름다운 남자가 나귀를 타고 성황당고개를 넘어갔다.

그날 밤 으스스 달빛 아래, 덕칠이 성황당고개에서 본 남자를 떠올리며 홀로 뜰에서 서성거릴 때였다. 낮에 보았던 바로 그 남자가 덕칠에게 사뿐이 다가와 곱게 절을 하며 “도련님, 저는 지금 갈 곳이 없는 몸입니다. 저를 거두어 도련님 댁에서 지내게 하여 주십시오. 비록 연약한 여자이오나 힘닿는 데까지 도련님 댁을 도와드리겠습니다.”고 간청했다. 이렇게 해서 남자는 덕칠이 집에서 살게 되었는데, 그는 하룻밤 사이에 덕칠의 집을 고래등같은 기와집으로 바꾸고, 창고마다 곡식을 가득 채워 부자로 만들었다.



또 덕칠도 그 남자와 혼인한 후 둘이 어머니를 더욱 극진히 봉양했다. 덕칠의 갑작스런 변화를 이상히 여긴 동네 사람들은 그에게 백년 묵은 여우의 요망한 짓이라고 했다. “자네 정신 차리게, 자네는 반드시 요망한 여우에게 죽고 말거야. 여우는 썩은 고기를 좋아하니까 여우인지 아닌지 알려면 썩은 고기를 자네 부인 머리맡에 놓아두고 어떻게 하는지를 보게”라고 덕칠에게 끊임없이 권했다.



달 밝은 어느 보름날, 덕칠은 썩은 고기꾸러미를 아내의 머리맡에 놓아두고 밖으로 나와서 아내의 동정을 살폈다. 그러자 아내는 고기꾸러미를 풀어헤치고 허겁지겁 썩은 고기를 먹기 시작했다. 아내의 행동에 놀란 덕칠이 방문을 활짝 열어 젖혔다. 그러자, 사람들의 말대로 아내는 무서운 여우로 변해서는 “나는 인적이 없는 깊은 산중에서 백 년 동안 인간이 되기 위해 수도한 여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보름달이 지는 새벽까지 당신 간을 먹어야 사람이 되고, 그 때까지 간을 먹지 못하면 영원히 죽고 맙니다. 자 어서 이라 가까이 와요. 어서 당신 간을 나에게 주세요”하면서 여우는 덕칠의 가슴을 풀어 헤치며 덤벼들었다. 덕칠은 눈을 감으며 “나는 당신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라도 간을 기꺼이 줄 수 있소. 그러나 아무 것도 모르고 계신 우리 어머니를 모시지 못함이 안타까울 따름이요.”

이 말을 들은 여우는 슬픈 눈으로 덕칠을 바라보다 밖으로 뛰어 나갔다. 큰 바위 위에서 달빛을 받으며 서 있던 언니 여우가 동생 여우를 보자 “어서 가서 그 놈의 간을 먹어라. 오늘 새벽이 되기 전에 그 놈의 간을 먹지 못하면 정년 인간이 되지 못하고 죽는다. 어서 빨리!”하고 다그쳤다. 그러나 동생은 “언니, 제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 분은 안 됩니다. 그 분은 마음씨 곱고 효성이 지극한 분입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은 기간이었지만 저에게는 남군이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어떻게 그분을...”하며 언니 말을 듣지 않았다. 이렇게 옥신각신 하는 사이에 점점 새벽이 다가오자 언니 여우는 어디론지 사라지고 동생 여우는 모질게 찬바람이 부는 눈 쌓인 언덕에서 죽어갔다.

덕칠은 밤이 새도록 아내를 찾아 헤매다 눈 쌓인 언덕에서 죽어간 아내 여우를 발견하자 부둥켜안고 통곡하였으나 아내 여우는 영영 대답이 없었다. 그 후 덕칠은 여우를 양지바른 언덕에 묻고 어머니를 모시고 어디론지 떠나 버렸다. 이렇게 여우와의 애절한 사랑이야기는 서낭당고개를 맴돌며 고을 사람들의 입에 오가며 후세에 전해졌다. 현재 이 고개는 이름뿐, 사람의 통행이 거의 없어 길의 흔적만 약간 남았고 서낭당은 사라진 지 오래다.

세월이 흐르며 길의 형태는 희미해졌지만, 그곳에 깃든 이야기는 여전히 사람들의 기억 속에 살아 숨 쉽니다. 경기옛길을 걷는 일은 단순한 탐방을 넘어, 이런 이야기들을 다시 만나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다음 여름호에서 경기옛길이 들려줄 또 다른 이야기도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야기 발췌: 《경기도 역사와 문화 설화와 민담》 경기문화재단 경기학연구소 저



## ‘경기옛길 소식지’ 원고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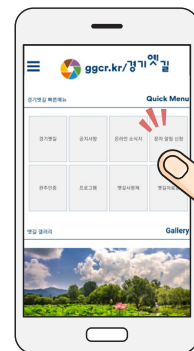
‘경기옛길 소식지’의 원고를 모집합니다. ‘경기옛길’에 관심 있는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채택되신 분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을 보내드립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 주제** 경기옛길 관련 자유주제
- 분야** 제한없음(시, 소설, 수필, 칼럼 등, **블로그 글도 가능**)
- 분량** 제한없음
- 마감** 없음(수시접수)
- 혜택** 채택 원고는 소식지에 게재하고 소정의 기념품 지급
- 응모방법** 이메일 또는 우편 중에서 선택
- 이메일** ggcrkr@naver.com
- 우편** (우16488)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78,  
4층 문화유산팀(경기옛길센터) 경기옛길 소식지 담당자 앞
- 문의** 경기옛길 소식지 담당자(031-231-8574)

경기옛길 소식지를 스마트폰으로 받아 보시려면  
경기옛길 홈페이지에서 **‘문자알림 신청’** 하세요.

경기옛길 소식지는 온라인으로 발행되는 계간 소식지로  
문자알림, 뉴스레터 수신 동의자에게 발송됩니다.

**관련문의 및 수신거부 요청 : 031-231-8576**





올해 온라인 소식지에서는 블로그와 카페 등 다양한 공간에 남겨주신 소중한 후기를 모아, 감사의 마음을 담아 지면으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경기옛길을 걸으며 느낀 경험과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다면, 소식지 독자기고에 참여해주세요.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기고문 앞에 수록된 포스터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원한 강바람이 봄을 재촉하는 듯...

### 경기옛길 [평해길 제3길 정약용길(마재옛길)]

양평 물소리길의 아직 아니 걸은 구간들을 생각했다. 지하철로는 닿을 수 없어 열차 예매가 필요했는데, 평일이므로 크게 서두를 필요는 없으리라 여겼다. 실제 며칠 전 지평역에서 열차를 탔을 때 출발 두시간 전에 예매를 시도했음에도 빈 좌석이 많았다.

이틀 전 저녁, 청량리에서 양동역, 일신역을 오가는 열차의 상황을 살피다가 놀랐다, 아침 열차는 좌석 여유가 있었으나 되돌아올 때가 문제였다. 어플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현장에서 입석 표를 구하는 게 최선이였다. 한 시간이면 청량리역까지 올 수 있다지만 3시간 혹은 그 이상을 걸은 후에 서서 올 생각을 하니 피곤함이 몰려오는 듯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다른 곳을 걷고자 했던 건 의지가 부족한 까닭일 것이다.

경기옛길 완주는 어플을 통해 가능한데, 평해길의 몇몇 구간은 어플을 설치하기 전에 걸어서 인증을 위해선 다시 걸어야 한다. 양평 물소리길과 경기옛길 평해길은 일부 구간이 동일하며, 내가 다시 걸어야 하는 구간 중엔 양평 물소리길에 속하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 모두가 존재한다. 가급적 지하철로 닿을 수 있으면서 길이가 너무 길진 않았으면 싶어 찾아본 결과, 제3길 정약용길(마재옛길)이 낙점됐다.

팔당역에서 운길산역까지, 총 거리는 12.9km. 주로 강을 끼고 있으며, 대부분이 자전거길과 함께 놓인 산책로라 걷기 편하다는 게 내 선택의 이유였다. 길이만을 놓고 본다면 제10길 솔치길도 8.1km로 도전하고 싶었으나 양동역까진 어찌 간다 쳐도 경기도와 강원도가 갈리는 경계 지점에서 귀가할 생각을 하자 막막함이 밀려왔다. 나머지 구간들은 길이가 15km를 훌쩍 넘기므로 아무리 난이도가 '쉬움'으로 적혀 있어도 내키지가 않았다.

아침을 먹고 11시가 되기 전에 집을 나섰다. 청량리역까지 이동한 후 경의중앙선을 타고 운길산역으로 향해 그곳에서부터 걷기를 시작하기로 마음먹었다. 가다 보니 시간이 애매해 식사를 해결했다. 12시가 되기



전으로 살짝 일렀으나, 건기의 시작, 종료 지점 모두 내가 잘 모르는 데다 식사하기에는 시간이 상당히 애매할 것이 분명했다. 혼자 식사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으면, 좌석의 일부가 아예 1인석이다. 벽을 보고 놓인 형태라 부담이 확실히 덜했으나 기분은 다소 묘했다.

청량리역에서 막 출발하려는 열차를 급히 탔더니 하필 덕소행이다. 귀에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듣느라 안내방송을 놓쳤는데, 덕소역은 내린 곳이 아닌 다른 장소로 이동해 양평 방면으로 향하는 열차를 타야만 했다. 플랫폼이 가까운 편으로 크게 번거롭진 않았지만 내린 장소에서 바로 탑승하는 것과 비교한다면 확실히 번잡했다. 운길산역에서 생각보다 많은 인원이 내렸다. 다들 어디로 향하는 건지. 역을 빠져나온 이들이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아니 걸렸다. 난 역 앞에서 어디로 가는 게 옳은지를 몰라 우왕좌왕했다. 원체 방향 감각이 없기에 종종 겪는 일이다.

마을 사이로 뻗은 길은 차량 한 대가 겨우 지나다닐 정도로 좁았으나 그만큼 한산했다. 오가는 사람이 없어 홀로 도로를 독점한 것만 같은 기분에 취해 그만 갈림길을 놓쳤다. 내가 잘못 걷은 방향을 고수했어도 결국에는 제대로 된 길과 합류하게 되는데, 어플이 자꾸만 “경로 이탈”을 부르짖는 게 신경 쓰인 나머지 왔던 길을 되짚어 돌아갔다.

이후에도 한 차례 헤맸는데, 이번에는 그 정도가 더 심했다. 능내역에서 마을 쪽으로 뻗은 길이 맞는데 그만 직진을 했다. 잘못 걷고 있음을 알아채지 못했더라면 정약용 선생 생가와 다산생태공원을 건너뛰고 가로지르는 결과를 낳았을 텐데, 이번에도 역시나 어플이 정신을 차리라며 나를 뒤흔들었다. 잘못 걷은 구간이 상당히 길어 갈등이 일었으나 걸어놓고 인증에 실패하는 것보단 낫지싶어 능내역까지 되돌아왔다.

난이도 ‘쉬움’이 어려우면 아니 된다. 잘못 걷은 시간을 포함해 3시간 16분을 걸었는데, 고도의 변화가 86m에 불과할 정도로 길은 평탄했다. 주변 풍광이 그다지 바뀌지 않아 걷는 동안 약간이지만 심심함에 시달렸던 게 단점이라면 단점이다.

주중이라 그런지 걷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일부러 걸으러 찾은 경우보다는 지역에 거주하는 걸로 추정되는, 강아지와 함께 산책을 나온 이들이 좀 있었다. 그나마 자전거를 타고 달리는 이들이 제법 있었으니 망정이지, 그들마저 없었더라면 걷는 내내 외로움에 시달렸을 것이다. 흥미롭게도 능내역 근처에서 한 무리의 닭 떼를 마주하기도 했다. 노상 있는 일인지 횡단보도를 줄지어 건넜는데. 흥미로운 마음에 인사를 건넬더니 부끄러웠는지(?) 일부가 길을 아니 건너고 뒤돌아 제 집으로 들어가버렸다.

다산생태공원을 지나면 등장하는 연꽃마을 쪽에서 고전했다. 며칠 전 내린 눈이 채 녹지 않은 게 원인이었다. 다른 이들은 어째 잘만 걷는데, 난 자세를 한껏 낮추기에 바빴다. 엉거주춤 걸으면서 속으로는 ‘아이젠’을 부르짖기도 했다. 잘못 미끄러지면 좁은 길 옆 늪지대같은 곳으로로 구를 수도 있겠다는 불안한 마



음이 들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우습게도 옆에 놓인 건 연꽃밭이었다. 깊이를 헤아릴 길 없는 호수보단 확실히 안전할 거였다. 게다가 얼어붙어 있기까지 했다. 이미 몇몇 이들이 과감히 연꽃밭을 가로질렀던지, 덮인 눈 위로 발자국이 꽤 선명히 찍혀 있었다. 보는 이가 없긴 하다면 그래도 길 아닌 사유지임이 분명한 곳을 내 멋대로 걸어가는 게 바람직한가? 어찌 보면 쓸데없는 생각을 놓아버리지 못한 채 나는 거북이와 견주어도 하등 나를 게 없을 정도로 느릿느릿 연꽃 지대를 벗어났다.

이후 구간은 앞서 걸던 자전거, 보행자용 산책로와 같은 형태로 편했다. 중간중간, 한강류를 즐기려는 사람들을 겨냥한 듯한 카페가 등장하기도 했는데, 그중 일부는 문이 굳게 닫혀 있기도 했다. 오늘날 장사를 하지 않는건지, 생각만큼 수익이 발행하지 않아 사업을 접었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었다.

살짝 커피 생각이 났으나 앞서 헤맨 시간이 길어 걸음을 재촉했다. 어둠이 묘한 분위기를 선사하는 터널을 통과하기가 무섭게 웅장한 팔달담이 제 위용을 뽐냈다. 아까부터도 도로는 나의 발밑에 있었으나 지나가는 차가 없었다면, 이 부근부터는 차량 통행을 심심찮게 목격했다. 일찍 일과를 마감하고 어디론가 훌쩍 떠나기 좋은 시점(금요일 오후)임이 은근히 실감 났다. 조금은 산만한 광경이다. 바로 옆에 도로를 끼고 걸어 그런지 앞선 산책로와는 사뭇 분위기가 달랐다. 한강 위로 놓은 고가 다리는 아직 고아가 진행 중으로 중간이 끊겨 있었다. 그 모습이 이상할 정도로 매력 있어 보여 나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사진을 찍었다.

운길산역도 그러했지만 팔당역 또한 경의중앙선을 이용할 수 있는 역이다. 확실히 열차 운행 횟수 면에서 무궁화나 itx-새마을에 비해 압도적이다. 게다가 이번에는 운도 따랐다. 내가 역에 들어갔을 때 열차가 직전 역인 운길산역에 도착해 있는 상황이었다. 역 하나 차이지만 거리가 상당하므로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플랫폼으로 들어섰다. 만일 그 열차를 놓쳤더라도 아신역에 열차가 또 한 대 있었으므로 기다림이 길지는 않았을 것이기에 조바심은 전혀 들지 않았다. 확실히 서울은 붐빈다. 퇴근 시간대와 겹치니 더더욱. 청량리역부터는 꼼짝 없이 서서 집까지 왔다. 그래도 피곤하지 않은 건 걸음이 수월했기 때문 같다.

걷는 내내 강바람이 제법 차다. 낮 최고 기온이 8도여서 그런지 춥다는 생각은 별로 안 들었다. 오히려 바람이 통하지 않는 패딩이 어느 순간부터는 거추장스럽게 느껴지기도 했다. 아직 2월 중순으로, 아직은 추울 날이 여럿 남았다. 그래도 봄은 조금씩 우리의 일상을 파고 들 것이고, 결국에는 모든 걸 사르르 녹이는 힘을 발휘하며 만천하에 제 존재감을 드러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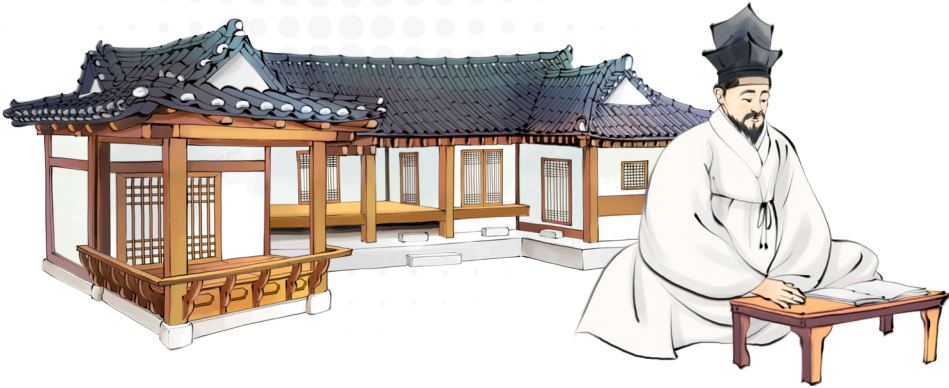
이번 호에 소중한 경험을 나눠주신 전수정 탐방객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의 기록이 모여 더 많은 이들에게 길 위의 즐거움을 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기옛길을 걸으며 느낀 여러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시길 바라며, 더 많은 참여와 관심을 기다리겠습니다.

더 많은 전수정 탐방객님의 기록을 원한다면?



# 기록따라 걷는 영남길 이야기

## 과거를 향해 걷던 선비들의 길



경기옛길에는 단순한 도보 코스를 넘어, 오랜 시간 축적된 역사와 연구의 성과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은 주로 연구서나 전문 자료에 머물러 있어, 일반 탐방객들이 쉽게 접하기에는 다소 거리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올해 소식지에서는 경기옛길 관련 연구서에 담긴 영남길 이야기를 일부 발췌해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봄호에서는 조선시대 선비들이 한양으로 향하던 ‘과거길’이자 ‘벼슬길’이었던 영남대로의 모습과, 그 길 위를 걸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영남대로는 조선시대 영남과 기호지방에서 살던 선비들이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갈 때 이용하던 길이었으므로 ‘과거길’, ‘벼슬길’이라고 불리기도 했는데, 이러한 명칭은 현재에도 그 잔영이 남아 있어서 실제 현지조사를 통해서도 마을 어른들에게 들을 수 있었다. 물론 과거길에 오른 선비들의 모습을 본 목격자들은 없을 테지만, 주민들이 어릴 적부터 마을 어른들로부터 들은 것 쓰고 도포에 붓짐을 메고 한양으로 올라가던 선비들의 이야기가 그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는 것이다. 조선시대에는 전국 각 지역에서 학덕을 갈고 닦은 선비들은 청운의 꿈을 품고 과거의 길에 올랐다. 이중 영남과 기호지역의 선비들이 이용하던 길이 바로 영남대로였다.

경상도에서 충청도로 오려면 험준한 소백산맥을 넘어야 한다. 그런데 전통사회의 토목기술에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몇 개의 고개길을 개척하여 이용하였다. 이러한 고개들로는 신라 때 개척된 죽령과 추풍령, 조선 때 개척된 문경새재 곧 조령이 있었다. 고개의 남쪽이라는 의미를 지닌 영남(嶺南)이라는 지명은 죽령의 남쪽을 뜻하는 말로 삼국시대 이후 영남지역에서 중부지역으로 이동할 때 가장 많이 이용하던 고개가 죽령이었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죽령을 이용하는 길은 영남지역을 가로질러 흐르는 낙동강과 중부지역을 가로질러 흐르는 한강이라는 양대 수로망을 이용함으로써 수륙연결이 편리한 길이어서 고려 이후 주로 세곡의 운반로도 이용되었다.

하지만 죽령은 조선 태종 14년(1414년)에 영남대로를 새로 정비되면서 그 중대한 역할을 문경새재로 내주고 말았다. 문경새재길이 개척되고 한양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단축되기도 하였지만, 과거를 보는 선비들에게는 다른 의미에서도 문경새재길이 고집되었다. 영남에서 과거를 보러 올라가는 선비들이 추풍령을 지나면 ‘추풍낙엽’처럼 낙방하여 떨어진다고 하였고, 죽령을 넘으면 과거에 ‘쭈욱’ 미끄러진다고 하여 선비들은 기를 쓰고 문경새재길을 애호했다고 한다. 더욱이 문경의 옛 지명은 ‘문희(聞喜)’인데, 이는 기쁜 소식을 듣는다는 뜻이므로 영남의 선비들뿐만 아니라 호남에서 올라오는 선비들도 먼 길을 돌아서 이곳을 통과하는 경우도 비밀비재하였다고 한다. 이 이야기를 우스개로 들을 수만은 없는 것이 한번 과거길에 오르면 집안의 기동뿌리를 하나 뽑아야 할 정도의 비용이 들었기 때문에 기록에 의하면 반가에서 평생 서너 번이고, 일반적으로는 한두번 정도밖에 볼 수 없었다. 따라서 이러한 고갯길을 택하는 일에서도 과거에 임하는 선비들의 조심스러운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것이다.

『노상추 일기』라는 문헌에는 경상북도 구미 선산 출신의 노상추라는 선비가 영남대로를 거쳐 과거길에 나선 이야기가 실려있어, 당시 과거길의 상황을 실감나게 접할 수 있다. 이 일기에 의하면 노상추는 스물여섯 살부터 ‘과거길 예행연습’에 나섰고, 그때마다 각종 정보를 수집하며 시험을 준비했다. 10년을 넘게 과거길에 나서면서 경비 조달에 애를 먹다가 결국에는 집안 살림이 거덜 나는 상황에 직면하기도 했다. 노상추는 생을 마감하기 전까지 일기를 남겼는데, 그의 일기 곳곳에서 과거길에 나선 당시 행적을 재구성해 볼 수 있다. 노상추의 일기를 바탕으로 조선 영조 4년(1780년) 그가 영남대로를 거쳐 과거길에 나선 여정을 되짚어 보자.

노상추는 과거 소식을 접하고는 연초부터 마음이 급해져서 일찌감치 한양행을 결정한다. 경비조달에 애를 먹었지만, 친척에게 발 열두 마지기를 팔아서 충당한다. 일주일이 걸리는 한양 가는 길의 비용, 한양에서 유숙할 한 달간의 비용 등이 적지 않아 그 돈으로도 빠듯할 지경이었다고 한다. 선산에서 한양까지 그의 여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월 21일** : 고양인 선산집에서 출발한다. 30리를 걸어 상주 노곡참에서 말을 먹인 후 40리인 향참 덕통참에 유숙한다.
- 1월 22일** : 덕통참을 출발하여 10리를 가서 향참 당교참에서 진주의 광선, 광진 형제와 의령의 조명계가 아들 석리를 데리고 합류한다. 상주의 와남의 안민수도 동행한다. 20리를 더 가서 유곡역 도착하였고, 여기서 10여리 떨어진 문경 신원참에서 말을 먹이고, 20리 길인 문경읍참에서 유숙한다.
- 1월 23일** : 노상추 일행은 걸어서 조령을 넘는다. 안보역참에서 말을 먹이고, 20리 길을 가서 연풍 수교참에 유숙한다.
- 1월 24일** : 30리를 가서 충주의 단역참에서 말을 먹인 후 60리 길인 충주 모도원참에 유숙한다.
- 1월 25일** : 30리길인 돌우너참에서 말을 먹이고, 여기서 50리를 가서 죽산 땅 주감참에 유숙한다.
- 1월 26일** : 40리를 가서 용인 금령시참에서 말을 먹이고, 50리를 가서 험천참에 유숙한다.
- 1월 27일** : 30리길인 광주의 신원참에서 말을 먹인 후 한강에 당도하여 서빙고 나루에서 얼음이 언 강을 건너 송례문으로 들어간다. 노상추는 침교 김성태 집에서 유숙하고 나머지 일행은 여사(旅舍)로 향한다.

위에서 기술한 일정과 경로의 기록에는 노상추가 구미 선산에서 과거길에 올라 한양까지 가는 여정이 잘 나타나 있다. 기록대로라면 일주일이 걸리는 여정이지만, 도보 이동을 감안하면 열흘 이상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돌원참은 현재 경기도 이천시 울면 일대로 추정된다. 현재 주민들은 이곳에 원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과거 마방과 주막, 임시 감옥과 같은 시설이 있었다는 제보가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 돌원의 전통은 원이 폐쇄된 이후에도 여행객을 위한 공간으로 이어져 왔음을 알 수 있다.

기록에 나타나는 주감참의 위치는 현재 지명과 일치하지 않지만, 문헌과 지역 전승을 통해 죽산 일대의 역참과 관련된 장소로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주변에 남아 있는 지명과 제보를 통해 이곳이 말을 관리하던 역참 지역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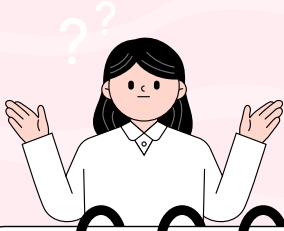
험천참 역시 정확한 위치를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당시 낙생면과 돌마면 경계에 위치한 낙생역과의 관련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노상추 일행이 유숙한 험천참은 낙생역 일대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영남길은 단순한 이동 경로를 넘어, 조선시대 선비들의 삶과 선택, 그리고 지역을 잇는 다양한 역할을 함께 담고 있는 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록과 연구를 통해 확인되는 이러한 이야기들은 오늘날 경기옛길을 걷는 경험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2026년 소식지에서는 이와 같이 영남길이 지닌 다양한 역사적 의미와 역할을 지속적으로 소개해 드릴 예정이니,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출처: 『경기옛길 속 민속』 경기학연구센터 발행, 김준기 저





# 독자참여



정답을 하단의 링크에 연결된 네이버폼을 통해 제출해주세요. 각 문제 당 한 분씩 총 세분을 뽑아 커피쿠폰을 보내드립니다.

## 지우면 보여요

아래문제에 해당하는 음절을 하나씩 지워주세요. 남은 글자들을 조합하면 정답이 됩니다.

노	천	성	림	길
사	상	황	옛	산
미	추	용	설	더
하	당	나	리	기
경	기	명	서	전

1. 조선시대 과거를 보기 위해 한양으로 향하며 자신의 여정을 일기로 남긴 인물은 누구일까요?
1. 아이와 보호자가 함께 참여해 옛길을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름은 무엇일까요?
3. 향긋한 향과 바삭한 식감으로 소개된 '자연애'의 대표 메뉴는 무엇일까요?
4. 영남길 1길 시작점에 위치한 봉수대가 있는 산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5. 여우 설화와 함께 소개되며, 예로부터 마을의 안녕과 길 위의 안전을 기원하던 장소는 무엇일까요?



- 1 2026년판 스탬프북은 기존과 달리 탐방 인증 방식도 함께 변경되었다.
- 2 '경기옛길 더하기, 환경 투개더' 프로그램에는 탐방 중 퀴즈와 경품 이벤트가 포함되어 있다.
- 3 천림산 봉수대는 최근까지 위치가 알려져 있었으며 별도의 복원 과정 없이 유지되어 왔다.
- 4 조선시대 선비들은 과거를 보러 갈 때 주로 문경새재길을 선호하였다.
- 5 박상욱 탐방객은 탐방 시 비싼 신발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정답



### 독자 의견

소식지 및 경기옛길에 관한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경기옛길 문화유산 탐험가 인증은  
**‘경기옛길 모바일 앱’**에서만 가능합니다.  
 경기옛길 모바일 앱은  
 애플 앱스토어 또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경기옛길’**을 검색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경기옛길 모바일 앱 설치하고 문화유산 탐험을 시작하세요!



경기옛길 7대로  
 문화유산 방문 인증하면  
**‘경기옛길  
 문화유산 탐험가 인증서’**가  
 발급됩니다.

**본격 문화유산 탐방 프로젝트**

go!



## 안전한 도보 여행을 위한 안내

- ❖ 너무 이르거나 늦은 시간의 도보여행은 삼가주세요.
- ❖ 혼자 도보여행을 할 경우에는 주변 사람에게 행선지를 꼭 알려주세요.
- ❖ 가급적이면 2명 이상이 함께 도보해주세요.
- ❖ 긴급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비상 연락처를 미리 알아두세요.
- ❖ 물, 간식, 응급약은 꼭 가지고 다니세요.
- ❖ 찾길을 걸을 때는 길가에 붙어서 한 줄로 걸어가세요.
- ❖ 도보에 불필요한 귀중품, 장신구 등은 가지고 다니지 마세요.
- ❖ 태풍, 폭우, 공사 등으로 위험지역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 깊게 살피며 걸으세요.
- ❖ 안전은 결국 본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도보 여행 중에는 항상 안전에 유의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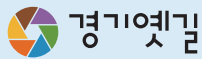
경기옛길 누리집 [www.ggcr.kr](http://www.ggcr.kr)

경기문화재단 경기옛길센터 031-231-8524

(16488)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78,

경기옛길센터(4층)





(우)16488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78, 4층 문화유산팀  
 경기옛길 누리집 : [www.ggcr.kr](http://www.ggcr.kr)  
 대표전화 : 031-231-8524 / 대표 이메일 : [ggcrkr@naver.com](mailto:ggcrkr@naver.com)

